

※다양한 평가 기준의 척도를 알아보자

- ㄱ. 타당성: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
- ㄴ. 합리성: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성질 →(상식적)
- ㄷ. 객관성: 언제 누가 보아도 그러하다고 인정되는 성질
- ㄹ. 공정성: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성질
- ㅁ. 정확성: 바르고 확실한 성질
- ㅂ. 신뢰성: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질

☞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공정하게 의견을 제시하면 의견의 타당성이 높아져 '합리적이다' 라고 할 수 있고 그 의견에 신뢰가 간다.

※다양한 질문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!

- ㄱ. 상대에게 정보 요구 (평저 구조가 무엇인가요?)
- ㄴ. 자신의 이해여부 확인 (우리나라에 적합한 구조라는 거죠?)
- ㄷ. 상대의 이해여부를 확인 (희토류에 대해 이해되셨나요?)
- ㄹ. 상대의 배경지식 확인 (이건 어떤 원리인지 알고 있나요?)
- ㅁ. 상대의 호기심 유발 (결과가 궁금하시죠?)

★2016 수능 '질문' 관련 문제의 정답 사례!

[2016 수능 A 1번 문제의 정답]

\*진행자는 해설사가 말한 내용이 진행자 자신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.

[2016 수능 A 3번 문제의 정답]

\*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중에게 질문을 한 뒤 반응을 살피고 있다.

[2016 수능 B 7번 문제의 정답]

\*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구한다.

☞2016 수능 한 시험에서 '질문' 관련 문제가 3문제나 출제 되었고 그것도 모두 정답 선지로 배치되었다! 좀 더 꼼꼼히 공부하고 문제에 질문과 관련된 항목이 나오면 높은 정답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문제에 접근하자!

※화법 상황에서 내용과 관련된 경험

- 1) 화자의 경험을 말함 → 흥미 유발의 효과.
- 2) 청자의 경험을 상기시킴 → 쉽게 이해시키기 위함.

- ▶ 청중을 집중하게 하는 요소들: - 질문하기  
 - 흥미 유발하기  
 - 어조 변화 및 손짓 사용

※다음은 말을 빌리는 일반적인 경우의 인용의 유형이다.

- ㄱ. 직접 인용: 남이 한 말을 그대로 옮김  
 →(큰 따옴표 있으면 직접 인용)
- ㄴ. 간접 인용: 남이 한 말을 화자의 말과 문맥 안으로 옮김
- \*엄마가 "오늘은 집 밖에 나가지 마!"라고 했어. →(직접 인용)
- \*최근 한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, 2050년에는 전 세계 희토류 수요량이 약 8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. →(간접 인용)

▶ 지문에서 인용을 빨리 찾기 위해서는 먼저 큰 따옴표에 집중! 다음에, ~(라)고, ~다고, ~다는, ~라는 등의 말에 집중하자!

※<비유법>에 대해 알아보자. (☆암기 사항)

- 1) 직유법: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. '마치', '흡사', '같이', '처럼', '듯' 등의 연결어를 사용함. (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)
- 2) 은유법: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. 'A는 B다'라는 형태로 표현됨. (내 마음은 호수요)
- 3) 의인법: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나 무생물,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. (별이 내게 속삭였다.)
- 4) 활유법: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. (냉장고가 숨을 쉬고 있다)
- 5) 풍유법: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으로 뜻을 암시하는 것. (등잔 밑이 어둡다)
- 6) 대유법: 대상의 부분, 특징, 모양 등을 들어,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. (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.) →(빵: 음식, 먹거리)
- 7) 의성법: 사물의 소리를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. (멍멍, 졸졸졸)
- 8) 의태법: 사물의 모양을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. (영금영금, 슬금슬금)

※<원인과 이유>를 구분해 보자!

- ㄱ. 원인: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된 일이나 사건.
  - ㄴ. 이유: 어떠한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까닭이나 근거.
- ☞ 대개는 (원인=이유)인 경우가 많으나, 근본적인 원인이냐? 직접적인 이유냐?를 구별 판단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된다.

※(분석 vs 구분 vs 분류)에 대해 알아보자!

- ㄱ. 분석: 대상을 개별 요소나 성질로 쪼갬.  
 (곤충을 머리, 가슴, 배로 쪼갬)
- ㄴ. 구분: 상위 대상을 하위 대상(종류)으로 나눔.  
 (과일을 사과, 배, 감 등으로 나눔)
- ㄷ. 분류: 하위 대상(종류)을 상위 대상으로 묶음.  
 (사과, 배, 감 등은 과일로 묶음)

☞ 비슷해 보이는 분석과 구분의 차이점은 분석된 개체(머리, 가슴, 배) 자체를 곤충이라 할 수 없으나 구분된 대상들(사과, 배, 감)은 자체를 과일이라 할 수 있다.

**※사례와 예시에 대해 알아보자!**

- ㄱ. 사례: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. (→과거의 일)
- ㄴ. 예시: 예를 들어 보임.

☞ <사례>가 <예시>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나 <예시>가 <사례>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.

**※(화법 혹은 작문)에서 관심을 끌거나 흥미를 유발하는 경우:**

- (화자 혹은 필자)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함.
- (청자 혹은 독자)가 쉽게 경험했을 법한 일을 말함.
- (화자 혹은 필자)가 <묻고+답하기> 표현법을 사용함.

**※의문문 VS 설의법 VS 문답법**

- ㄱ. 의문문: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함.
- ㄴ. 설의법: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(평서문)을 의문문으로 제시해 강조함.
- ㄷ. 문답법: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강조함.

(상대의 나이를 궁금해 하는 상황)  
A: 나이가 몇인가 →(일반 의문문)  
B: 20살입니다

(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상대를 질책하는 상황)  
A: 나이가 몇인가 (나이에 걸맞지 않다)의 강조! →(설의법)  
B: 죄송합니다 (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님!)

(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황)  
나이가 몇인가 →(문답법)  
내 나이 이제 40  
잠시 나를 돌아보자

☞ 똑같은 의문형 어미(-가)로 끝난 똑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표현기교로 사용될 수 있다. 물음에 대해 상대의 대답을 요구하면 '일반 의문문, 내가 대답하면 '문답법'이며 '설의법'은 형식만 의문문이지 실제로는 평서문의 강조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답을 기대하지도 또한 답이 나올 필요도 없다.

**※열거, 반복, 대구에 대해 알아보자! (매년 출제되는 개념☆)**

- ㄱ. 열거 (나열): 비슷한 말을 늘어놓음.  
(딸기, 포도, 사과는 과일의 종류이다)
- ㄴ. 반복: 동일한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. (눈, 눈, 눈이 내린다!)  
☞운을 형성!
- ㄷ. 대구: 문장의 동일한 구조를 짝지어 줌  
(콩 심은데 콩나고, 팥 심은데 팥난다.) ☞운을 형성!

**※반언어와 비언어에 대해 알아보자!**

- ㄱ. 언어적 표현: 문자 혹은 음성 언어
- ㄴ. 반언어적 표현: 억양, 고저, 어조, 속도 등
- ㄷ. 비언어적 표현: 손짓, 몸짓, 표정, 옷차림 등

☞ 비언어적 표현이 반대로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.

엄마: 이 장난감은 동생에게 양보할 수 있지?  
아들: (시무룩한 표정으로) 네...  
→(긍정의 대답이지만 비언어적 표현이 그 의미를 약화시킴)

**※토의 vs 토론**

- ㄱ. 토론: 찬성과 반대로 나누는 확실한 대립점이 있는 논제이어야 한다. (교복 착용의 의무화해야 하는가? / 동성간의 결혼 합법화 필요한가?)
- ㄴ. 토의: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 협력적 논의이다.  
(불우 이웃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? / 취업난을 해결할 정책은 무엇인가?)

**※의인법 vs 활유법에 대해 알아보자!**

- ㄱ. 의인법: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.
- ㄴ. 활유법: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,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.

☞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면 의인법, 인간을 포함하여 다른 생물체까지 나타나는 특성이면 활유법이다.

**※대화의 원리 중 <공손성>에 대해 알아보자.**

:대화에서 상대방에게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원리

- 1)<요령>의 격률-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도움이나 이익이 되는 말
- 2)<관용>의 격률-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보다는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대화
- 3)<겸양>의 격률-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자신에 대한 비방을 극대화 (=겸손)
- 4)<찬동>의 격률-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은 최소화하고 칭찬 최대화하며 자신에 대한 비방을 극대화 (=칭찬)
- 5)<동의>의 격률-상대화 의견이 다른점을 최소화하고 일치하는 점을 최대화

**※의문문에 대해 알아보자!**

- ㄱ. 판정 의문문: 예, 아니오의 대답을 요구. (학교 갔다 왔니?)
- ㄴ. 설명 의문문: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. (학교에서 무엇을 했니?)
- ㄷ. 설의법: 형식만 의문이고 강한 생각을 나타냄.  
(조용히 안 할래?→조용히 해!)